‘성적 조작’ 터질 것이 터졌다

광주·전남 교육계 “부실한 시스템이 원인” … 평가 신뢰도 논란 확산

교과부, 전국 초·중·고 전면 재조사

전북 임실교육청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허위 보고 파문에 대해 광주·전남지역 교육계는 ‘터질 것이 터졌다’며 부실한 평가 관리 시스템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시험관리와 감독, 채점까지 해당 학교 교사가 직접하는 현행 체제에서 ‘과연 임실만 그랬겠느냐’며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재조사하기로 해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 김정석 정책실장은 19일 광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임실)사태는 교육을 서열화하려는 현 정부 교육정책의 폐단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비단 임실만의 사안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해 10월 평가시험 당시 광주지역 일부 초등학교와 사립중학교 등에서는 미리 학습지를 공동구입해 시험에 대비하는 등 과열양상을 보였다”면서 “일부 학교에선 시험성적을 수행평가(태도 항목) 등 성적에 반영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는 결국 교사에게 성적에 대한 부담을 줬고, ‘성적 부풀리기’로 이어졌을 수도 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광주 모 초등학교 교사도 “교장이 교무회의 등에서 시험 성적에 신경을 좀 쓰라는 말을 자주했다”면서 “선생님들의 양심을 믿고 싶지만, 성적 조작의 유혹에 빠진 교사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의 이같은 의견은 담당 교사가 시험지와 답안지의 관리, 감독, 채점과 전산 입력까지 직접 맡는 구조에서 채점 결과 조작 등 각종 편법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교조 광주지부는 조만간 대책 회의를 갖고 일선 학교를 중심으로 ‘시험 조작 및 부작용 사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토론회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평가와 채점, 집계과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조작 없나요” “네 없습니다”

광주·전남 교육청 전화로만 조사

“우리쪽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19일 오전 “학업성취도 평가를 재 조사한 결과 성적조작 등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도 교육청은 “19일 새벽 1시께 교과부에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오후 8시께 전북교육청의 성적 조작 의혹이 제기된 이후 불과 5시간만에 조사가 마무리 된 것이다.

이처럼 발빠른(?)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을까. 시·도 교육청의 조사 과정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가능하다. 신뢰성이 높은 현장 조사 대신 전화 조사 방식을 동원한 덕분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초등학교 20여 곳과 중학교 20여곳, 고등학교 10여곳 등 50여곳에 전화를 했다.

전남도교육청도 지역 교육청과 합동으로 광양지역 초등학교 10여 개교를 비롯한 초·중·고 470여곳에 전화를 걸어 이상 유무를 확인했고, 모두 ‘이상 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아냈다.

임실교육청의 성적 조작 파문이 확산되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실태조사를 지시했으나 이마저도 부실하게 이뤄진 것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채점과 판별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일선 학교에서 2~3차례 점수를 확인하고 입력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도 “18일 밤 11시께 교과부에서 성적 조작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했다”면서 “모든 교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일선 교사는 “전화로 문의를 하면 어떤 교사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겠느냐”면서 “전화 요금이 아깝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광주지부 관계자도 “일선 학교에 또 한 번 부담만 주는 행위다. 만약 나중에 무슨 문제가 나오면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임실교육청 허위 보고 … 미달생 6명 누락

임실교육장 사임

전북도교육청은 임실교육청이 기초학력 미달생을 누락 보고한 것과 관련, “임실 지역의 전체 15개 초등학교의 답안을 재조사한 결과 미달생이 애초 3명으로 발표됐지만 실제 6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또 임실교육청은 미달생이 있는 것으로 뒤늦게 집계하고도 단 1명도 없다는 허위 보고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임실교육청의 고의적인 조작과 교육과학기술부의 통계 왜곡해석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북 임실교육청 장위현 교육장은 이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일부 허위 보고한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또 임실교육청 초등교육과 박진자 장학사도 직위 해제됐다./연합뉴스

딱한 범죄 벌금 감액

광주지검 ‘정상관계 진술서’ 첫 도입

광주지검이 서민 생계형 범죄자의 벌금을 줄여주기 위해 피의자들의 생활 형편을 가늠할 수 있는 ‘정상관계 진술서’를 처음으로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19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검이 발표한 ‘서민과 함께하는 검찰권 행사를 위한 특별조치’ 방안의 하나로 ‘정상관계 진술서’를 만들어 활용키로 했다.

이 진술서는 범죄자가 벌금 감액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광주지검은 최근 경찰서 등 사건을 송치하는 기관 50곳에 양식을 배포해 송치기록에 첨부하도록 했다.

A4용지 한 장 분량인 이 진술서에는 개인의 채무규모나 신용불량자 등재 및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등을 기재토록 돼 있다. 또 한부모가족 여부 및 피의자나 동거 가족의 질병 유무도 묻고 있다. 피의자의 생활 형편을 가늠하기 위한 일종의 점검표인 셈이다.

검찰은 진술서에 따라 오는 6월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일반 양형 기준의 3분의 1수준, 또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생계형 범죄자 등은 3분의 2수준까지 벌금을 낮춰 구형할 예정이다.

박영렬 광주지검장은 “서민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객관적 기준으로 점검표를 만들었다”며 “벌금을 낼 돈이 없어 교도소에 가는 일이 없도록 벌금 분납이나 납부연기 확대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경호기자 choice@

중·고생 교복 물려주기

19일 광주시 북구 일곡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중·고생 교복 물려주기’ 행사에 참가한 주민들이 자녀의 교복을 고르고 있다. 일곡동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선 하복 1천원, 동복은 5천원에 팔아 3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수익금 전액은 (재)북구장학회에 기탁할 예정이다. 행사는 20일까지 열린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여성 손가방 7차례 날치기

광주 북부경찰, 10대 5명 검거

광주북부경찰은 19일 길을 가던 여성들의 손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박모(15)군 등 5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군 등은 지난 8일 밤 9시15분께 광주시 북구 임동 한 성당 앞길에서 김모(여·50)씨의 손가방을 낚아채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7회에 걸쳐 2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학교 동창생인 이들은 친구들과 PC 게임비를 마련하기 위해 날치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만능열쇠로 빈 상가 털어

광주북부경찰은 19일 만능열쇠로 빈 상가 등의 잠금장치를 푼 뒤 금품을 턴 서모(38)씨 등 3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난 11일 새벽 3시께 광주시 북구의 한 인테리어 사무실에 침입해 컴퓨터 1대를 몰래 가져가는 등 1년 6개월 간 52회에 걸쳐 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병원 돌며 금품 훔쳐

광주북부경찰은 19일 도심 병원을 돌며 금품을 훔친 서모(20)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5일 새벽 1시께 광주시 북구의 한 종합병원 원무과 금고에서 현금을 훔치는 등 1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지역 병원 7곳에서 14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

재미삼아 아파트 20가구에 불 질러

쌍나팔

○…재미삼아 아파트 출입문에 매달린 우유 주머니와 우편물 보관함 수십 개에 불을 지른 철부지 중학생 3명이 경찰서행.

○…광주서부경찰은 19일 아파트 복도를 돌며 우유 주머니 등에 불을 낸 광주 모 중학교 3년 박모(15)군 등 3명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

○…경찰에 따르면 박군 등은 지난 5일 오후 8시30분께 광주시 서구 모 아파트 김모(여·35)씨 집의 출입문에 달린 우유 주머니에 불을 내는 등 2시간 동안 20가구의 우유 주머니 등에 불을 내고 도주한 혐의.

○…이들은 승강기를 타고 21층까지 올라간 뒤 계단을 이용해 내려오면서 차례로 불을 질렀는데, 경찰에서 “재미삼아 했다”며 태연한 표정.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